

한우 몸무게 추정 프로그램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우 사육 방법과 성별, 월령(나이) 등에 따라 몸무게를 추정하는 ‘한우 표준 체중 계산기’ 프로그램(엑셀)을 개발했다.

한우 몸무게는 일일사료급여량과 출하 시기 결정 등의 사양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다.

실제 사양 관리 지침(프로그램)에 따르면, 번식소와 처녀소(미경산) 비육, 경산암소 비육, 거세우 비육 시 사료급여량은 각 개체 체중의 일정 비율을 먹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저울(우형기)을 갖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소에 고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울로 유도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목표 체중에 이르러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정도를 눈으로 가늠해 출하 시기를 결정한다. 이는 출하 개체의 균일도를 높일 수 없고, 체중에 따른 사양 관리는 물론 효율적 축군 관리도 힘든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한우 연구소 보유 축 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능력 평가와 등록 자료, 각도 축산연구소와 지역 축협 등의 체중 측정 자료로 한우의 성장 곡선을 추정, 엑셀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연구활동 → 농가활용프로그램)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농가는 프로그램에 키우는 소의 사육 방법(번식우, 비육 여부 등)과 월령, 성별을 입력하면

표준 체중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권응기 한우연구소장은 “프로그램이 한우의 월령을 기준으로 평균 체중을 예측하는 것이어서 개체별로는 평균 대비 1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5. 07. 06]

한돈자조금, 하반기 한돈 광고 ‘실구매’ 유도 초점

한돈자조금의 하반기 TV/라디오광고는 가격만을 감안한 수입육 대신 프리미엄 한돈구매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새로운 광고가 오는 9월 1일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케이블 TV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광고의 기획방향. 관리위는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기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물량이 지난해 전 체 도입량의 7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위는 이에 대해 한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지만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데 광고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한돈의 충성고객인 주부뿐만 아니라 직

장인까지 광고의 주요 타깃을 확대, 외식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광고에서는 한돈의 다양한 취식상황을 보여주면서 소비접점을 늘리고, 화려한 씨즐감을 표현해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수입육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면서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 국산애용을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광고를 통해서도 수입육의 차별화를 도모, 혹시 모를 소비자의 한돈시장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의 하반기 광고는 이달 중순 촬영을 마치고, 오는 8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한돈자조금사업 설명회에서 양돈농가들에게 우선 공개될 예정이다.

축산뉴스 이일호 기자 [2015. 07. 22]

한국산 흰 우유, 중국 수출 본격화



한국산 73℃ 신선살균 흰 우유(살균유·사진)가 드디어 중국 수출 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매일유업(주)는 지난 7월 21일 전북 고창군 소재 상하

공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

책실 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기윤 차장·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매일유업 김선희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 흰 우유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원 실장과 장기윤 차장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고 중국 현지 홍보·판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수출 지침을 마련하고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검역검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희 대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모든 요구 사항에 부합된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우유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를 위해 앞으로 중국으로의 살균유 수출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수용 회장은 “막혀있던 살균유 중국 수출이 재개되어 낙농과 유가공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우유와 유제품도 기술력과 품질로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특히 대 중국 수출에 큰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손정렬 회장은 “원유수급불균형과 FTA확대 등 세계 자유무역경제 체제하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유업의 살균유 중국 수출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국의 낙농가를 대표하여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21일 군산항을 통해 수출한 흰 우유 1차분은 180ml와 750ml 2종 5톤이다. 올해 말까지 600톤(80만달러)을 수출하고, 내년에는 3천톤(4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할 계

확이다. 중국 산둥성 쓰다오항에서 중국 식품 안전검사국의 현지 심사를 한 차례 더 받은 후 북경과 상하이 등 특급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매일유업 흰 우유의 중국 수출은 중국의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 시행 이후에 중국 법규에 맞춰 한국산 살균유를 공식적으로는 중국으로 최초 수출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한국산 살균유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중국 정부의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 요구로 사실상 수출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일유업 상하공장과 서울우유 거창공장 등이 중국 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돼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한 관계자는 "비타민과 칼슘 등을 강화한 '목장고칼슘우유'와 '양팡우유' 등 강화우유를 그동안 월 평균 200ml 기준 120만개를 수출하고 있어 살균유 수출일정은 아직 잡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우유업체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 1위는 서울우유(1조7천730억원)이며, 2위는 매일유업(1조2천26억원)이다.

축산신문 조용환기자 [2015. 07. 22]

**양계협회,
치킨 외식업계에
가격인하 요청**

치킨가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치킨외식산업 업체에 가격인하를 요청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7월 10일 치킨외식산업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치킨가격 상승으로 불황에 빠진 육계산업 및 닭고기 산업을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양계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라이드 가격은 2004년 마리당 1만1000원이고, 2014년엔 1만6000원으로 45%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산닭가격은 kg당 2004년 1242원이고 2014년은 1561원으로 가격 상승률은 25%를 보이고 있다.

양계협회 측은 높아진 치킨 가격의 원인을 치킨업계 간 스타마케팅 등을 이용한 치열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영세한 가맹점에 전가돼 비용 상승을 부추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치킨외식업계에 산업 발전을 위해 가격인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가격인하 과정에서 영세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계협회는 "치킨외식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준다면 어려움을 겪는 양계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닭고기 소비를 더욱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15. 07. 17]

국내산 벌꿀 수요 급증 ... 재고물량 대거 소진

벌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양봉업계는 최근 벌꿀관련 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벌꿀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은 “벌꿀 식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식품회사에서 국내산 벌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국내산 벌꿀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양봉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봉농협의 경우 장기간 보관 중이던 재고벌꿀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은 “1천 드럼 정도 보관 중이던 재고벌꿀이 거의 소진됐고, 올해 수매하는 4천 드럼도 어렵지 않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합에서는 일정부분 벌꿀재고를 보관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조절용으로 사용하는데 올해는 여유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벌꿀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올해 아카시아 꿀 생산량은 평작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6. 24]

